

파키스탄에서 K-농업 확산 본격화

코피아 센터 개소로 협력사업 출범 공식화

씨감자·고추·조사료 생산성 향상 등 수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4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파키스탄 농업연구청(PARC)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 파키스탄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주 파키스탄 대사표 한국대사를 비롯해 파키스탄 사이드 파카르 이맘 식량안보연구부 장관, 무하비드 아진 칸 농업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농업기술 발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다.



KOPIA 파키스탄 센터 개소식이 열린 지난 4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농업연구청(PARC)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파키스탄 센터를 통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 전수, 다양한 동반 관계(파트너십) 구축과 농산물의 가치사슬 확대 방안 등을 담았다. 또한 한-파 미래 협력 방향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파키스탄의 농업 현대화, 인적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및 디지털 농업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은 한-파키스탄 농업협력 확대의 출발점이자 한국형(K) 농업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이 민간 협력 사업으로 발전해 농업인 소득향상, 기업의 이윤 창출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지식·기술·인력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농진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한 무병 씨감자 생산기술을 통해 우량 씨감자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파키스탄 씨감자 생산성 30% 이상 향상 ▲2025년 씨감자 소요량의 50% 공급 ▲2028년 씨감자 100% 자급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은 한-파키스탄 농업협력 확대의 출발점이자 한국형(K) 농업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이 민간 협력 사업으로 발전해 농업인 소득향상, 기업의 이윤 창출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 안전사고·축산 폭염 피해 발생 않도록”

임실군-국립축산과학원 축산분야 현장 점검서

임실군과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박병영)이 지난 2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임실군 주요 축산현장을 방문하여 축산농업인을 위로하고 농업인 안전사고와 축산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임실군은 3주 연속 30°C가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축산인들의 건강과 폭염이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증체량과 산유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한우농장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발정탐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번식효율 및 증체효율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고온기 축사의 안정적인 기후변화대를 환경 시스템이 없다면 수정률 감소 등 부수적인 생산비 절감 효과는 미미하며 작은 환경관리 실천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좌우된다는 현장 실정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 낫농장의 경우 산유량 감소 및 고온 스트레스 피해 노력 결과 가축 폐사를 제로 실적을 성실히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사 인계분무시스템 도입을



임실군과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2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임실군 주요 축산현장을 방문하여 축산농업인을 위로하고 농업인 안전사고와 축산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풍한 고온 피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공기의 흐름을 잘 감지하고 자연환기 시스템과 연계한 인공 환기공조시스템의 점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계분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사 내 기류 시스템을 이용한 온도하강 및 다양한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 방향을 제시하면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병영 원장은 "현장 행정 추진과 전문인력자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축

종별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형 및 축사에 맞는 고온 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자립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군 관계자는 "기상재해 대응에 신속한 조치 및 농작물 피해 제로화를 위해 농축산 산업분야 및 안전재해 관리 분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서부산림청, 직원 대상 혁신조달제품 교육·구매 앞장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4일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혁신조달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10인이하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혁신조달제품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혁신조달제품의 전반적인 이해와 혁신제품 구매 방법 등을 교육했다.



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민간 제품을 발굴하여 공식적으로 인

증한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에서는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며, 올해 상반기 서부청에서도 혁신조달제품인 차폐페인트를 구매한 실적이 있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직원들의 복지향상,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 지식재산 특례보증 금융지원 오늘부터 실시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식재산(IP)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의 특화된 활성화와 혁신, 창업 사업과 촉진을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손을 맞잡고 6일부터 IP패스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허권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기업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으로,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 1년 만기일시(5년까지 연장가능), 기술보증기금의 90% 이상 보증서를 지원한다.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이번 지식재산(IP) 특례보증 금융지원이 지방소재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특허권 사업화의 마중물이 되어 전북 IP산도 지역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LX, '모바일 랜디고' 활용

지적측량 업무혁신 방안 찾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현장의 지적측량 업무혁신의 방안을 '모바일 랜디고' 활용으로 답을 찾았다.

LX공사는 5일 김제시 백구면 일대에서 공간정보본부 정보지원실에서 개발한 측량서비스 시스템 '모바일 랜디고' 시연을 지적사업본부 지적사업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모바일 랜디고'는 LX공사가 추진 중인 지적서비스 혁신의 연장선으로 현장에 나가기 전 드론맵 지적통합정보 등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 결정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LX공사는 '모바일 랜디고' 활용으로 실시간 현장자료 전송을 통해 업무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측량팀의 탄력적 운영과 측량의뢰 시 민원의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으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상 기자

함께한 60년, 행복한 동행예금

NH농협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출시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특관예금 'NH함께한 60년, 행복한 동행예금'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NH함께한 60년, 행복한 동행예금'은 기 출시된 NH농촌으로 적금과 NH사랑해요·감사해요 적금(판매종료)에 이어 세 번째 창립 60주년 기념 상품으로 전국 영업점과 농협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1000억 한도로 판매되며 한도

벤트 1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LG스타일러(1명), 2등 명품한우세트(2명), 3등 해피머니 상품권 1만원(49명)을 제공하며, 이벤트 2는 가입고객 중 출생년도가 1960년~1989년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케이크 교환권(100명)을 제공한다. 이벤트, 2는 중복 당첨 가능하다.

아울러 SNS 채널을 통한 홍보 이벤트도 진행한다. 농협은행 페이스북 시판매가 종료된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최소 3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아무 조건 없이 특별우대금 리 0.80%를 더해 최고 연 1.4%(8월 1일 기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상품출시를 기념해 고객부심 메시지를 담은 '부메랑 사랑은 돌아오는거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김윤상 기자



협약을 맺은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과 박주용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5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중기 동반성장 K-FUND 조성

전기안전공사, IBK기업은행과 한국판 뉴딜 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한국판 뉴딜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공사는 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IBK기업은행 박주용 부행장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산업 지원 및 중소기업과 즐거운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K-FUND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FUND는 공사의 영문 약어인 'KESCO'와 'FUND'를 합친 단어의 줄임말로, K-뉴딜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유망 중소기업들을 도와 한국판 뉴딜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즐거운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조성한 '신동반성장 상생펀드'의 명칭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공사는 IBK기업은행에 맡긴 예탁금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해 대출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만든 뉴딜투자 공동기금'에서 정의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신용도 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동반성장 상생펀드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을 상생펀드 자금으로 예탁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운영자금 대출 시 적용여신금리에서 1.60%를 자동 감면하는 특례지원과 기업의 신용등급, 거래여도 등에 따른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사업이 한국판 뉴딜 추진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중앙회, 온라인 중기 ESG 애로신고센터 설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관련 애로 대응을 위해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ESG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ESG 애로신고센터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1일 ESG 전담팀 신설에 이어 ESG 애로신고센터를 개설한 것은 급속한 경영 환경의 변화가 중소기업에 야기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경영 기조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들은 ESG 관련 거래처의 부담 요구나 평가비용 과다, 평가 기준 혼란, 정부지원 요청 등을 포함한 ESG 관련 다양한 분야의 애로를 호소할 수 있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접수된 애로사항은 사실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정부·국회·대기업 등에 개선 요청 및 정책제언 제안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내 '상담센터 탭'의 'ESG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비회원인 경우에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애로사항 호소 및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정육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향후 중소기업 대상 ESG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ESG애로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바람직한 ESG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